

■ 광주 새 야구장 좌석대비 주차면수 광주
좌석 22,244석
주차장 1,116면
잠실
좌석 25,500석
주차장 2,000면
문학
좌석 26,923석
주차장 4,559면



광주 새 야구장 '주차전쟁' 뻔하다

수용인원 2만2천명에 주차장은 1116면

잠실·문학구장 비해 태부족... 혼잡 우려

을 연발 완공을 앞둔 광주의 새 야구장인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내년 시즌에 본격 돌입하면 주변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광주시가 애초 발표한 2300대 규모의 주차시설보다 절반 이상 적은 1100석만 확보하기 해 주차난이 불가 피해졌기 때문이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 임동 무등야구장 옆 구 무등경기장 축구장에 모두 994여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2만2244석·최대수용인원 2만7000명)의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신축야구장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그러나 신축야구장 지하 1·2층에

고작 1116대의 주차시설만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차난에 따른 교통혼잡이 우려된다. 이는 좌석 수가 비슷한 문학(2만6923석)·잠실구장(2만5500석)이 확보중인 주차장 4559대·2000대보다 각각 3443대·888대 적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3월 초 야구장에서 직선거리로 300m 떨어진 보훈회관·한국아델리움 1차 후문·RCY(청소년 적십자) 광주전남본부·임동 119 안전센터 인근 등 4곳 부지(2만 9170㎡)를 주차장 시설로 결정고시 했다. 이 부지에 1200대의 주차시설을 조성해 이 일대 고질적인 주차난

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시는 최근 예산 부족과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차장 조성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시는 내년 시법경기가 열리는 3월부터 신축야구장을 개장한 뒤 관중 수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임동 주민들은 "또 속았다.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피해만 감수하라고 할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프로야구 경기가 열렸던 무등야구장은 주차공간(최대 400대·공식 250대)이 협소해 게임이 벌어지는 날엔 주변 도로가 대형 주차장으로 전락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주민 조모(54)씨는 "야구장 규모는 커졌는데,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신축야구장이 개장되면 주변 일대가 주민·관객·등 차들로 극심한 주차난에 휩싸일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헥은 전혀 주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피해만 감수하라고 할 것이냐. 더 이상 참고만 있진 않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시결정한 부지를 수용하려면 지난해 기준 400억 원이 필요한데, 예산 부족으로 매입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도 결성하지 못했다. 우선 야구장을 개장한 다음 단계적으로 주차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기자 jeans@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8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들어설 새 야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벽 도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완공이 눈앞이지만 확보된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본격 운영되면 주변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광주시교육청 위원회는 '공무원들 독무대'

전·현직 출신 84%나... 학생·여성 비율 극히 저조

내년부터 '어획물 운반선 체크 포인트제' 시범도입

내년부터 한·중 양국이 서해에서 공동으로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2~25일 중국 하이난(海南)성 산야(三亞)시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양국 지도선이 서해 잡정조치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잡정조치 수역을 공동 단속하는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어획물 운반선 체크 포인트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체크 포인트제가 도입되면 중국 어선이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지나려면 지정된 포인트를 통과해야 하고 이때 한국 지도선이 불법어획물을 적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달 초 중국 농업부 자오싱우(趙興武) 어업국장이 방한해 서해 중국어선의 조업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울러 한국 측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조업허가 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자동위치식별장치(AIS) 부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위치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입어절차를 준수한 중국 어선은 모범 선박으로 지정해 단속을 완화할 방침이다.

양국 해양수산당국은 상대국 무려가 어선의 인수·인계 강화, 단속공무원 간 교차승선, 해상 임검을 표준 질의응답 표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다음 달 초 중국 농업부 자오싱우(趙興武) 어업국장이 방한해 서해 중국어선의 조업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울러 한국 측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조업허가 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자동위치식별장치(AIS) 부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위치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입어절차를 준수한 중국 어선은 모범 선박으로 지정해 단속을 완화할 방침이다.

양국 해양수산당국은 상대국 무려가 어선의 인수·인계 강화, 단속공무원 간 교차승선, 해상 임검을 표준 질의응답 표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다음 달 초 중국 농업부 자오싱우(趙興武) 어업국장이 방한해 서해 중국어선의 조업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전·현직 공직자가 83%에 달해 위원회 지나치게 공직자 출신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28일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시교육청 산하에는 모두 66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여기에 796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현직 공무원 출신이 667명으로 83.8%에 이르렀다.

특히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47%나 참여하고 있어 이 단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기 힘들고 주요정책 결정시 교육감이나 고위 간부

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무원 출신 다음으로 시민단체 52명 6.5%, 변호사·노무사 33명 4.1%, 기업 13명 1.6%, 시의원 11명 1.4%, 의사 6명 0.8%, 시민 4명 0.5%, 언론사 4명 0.5%, 종교계 3명 0.4%, 회계사 2명 0.3%, 학생 1명 0.1% 등이다.

이 단체의 한 관계자는 "교육주체인 학생의 참여율이 단 1명에 그친 것이나 여성 비율이 22%에 머문 점도 안타깝다"며 "공무원 참여비율을 낮춰 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옥기자 jwpark@kwangju.co.kr

한·중 서해상 불법조업 공동단속

내년부터 '어획물 운반선 체크 포인트제' 시범도입

내년부터 한·중 양국이 서해에서 공동으로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2~25일 중국 하이난(海南)성 산야(三亞)시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양국 지도선이 서해 잡정조치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잡정조치 수역을 공동 단속하는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어획물 운반선 체크 포인트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체크 포인트제가 도입되면 중국 어선이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지나려면 지정된 포인트를 통과해야 하고 이때 한국 지도선이 불법어획물을 적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달 초 중국 농업부 자오싱우(趙興武) 어업국장이 방한해 서해 중국어선의 조업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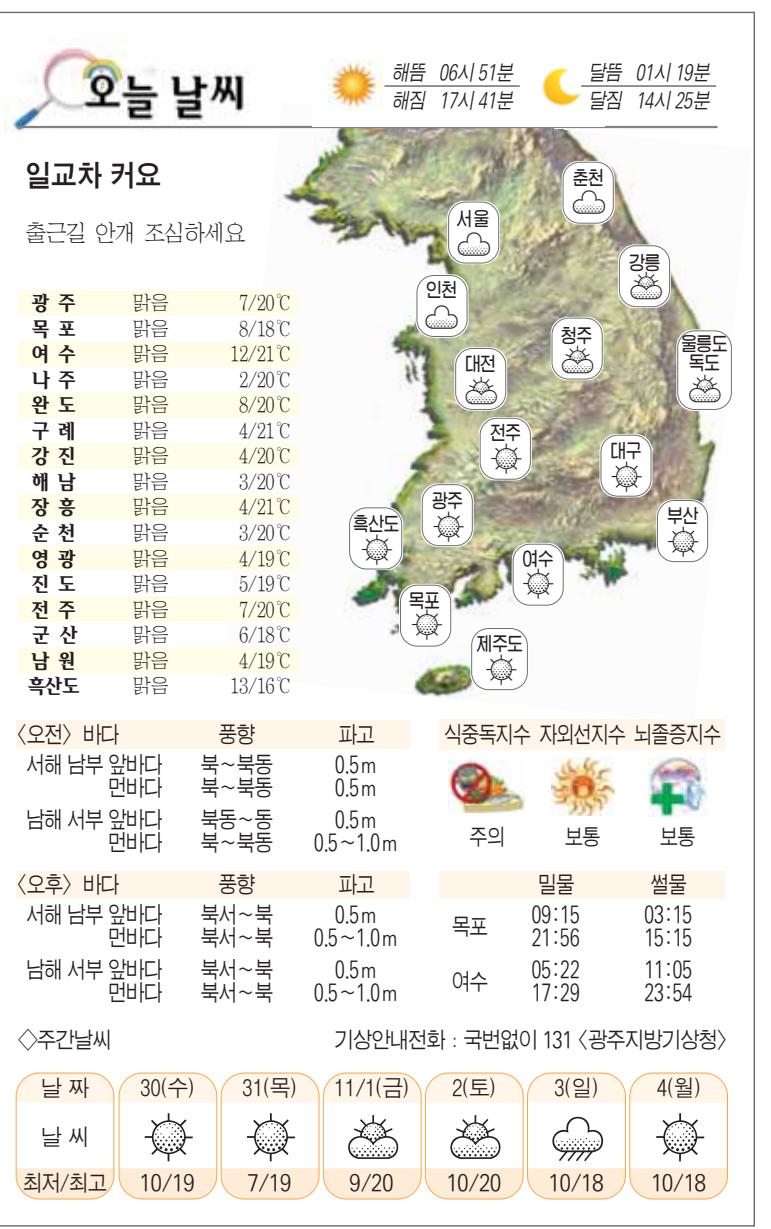
울러 한국 측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조업허가 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자동위치식별장치(AIS) 부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위치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입어절차를 준수한 중국 어선은 모범 선박으로 지정해 단속을 완화할 방침이다.

양국 해양수산당국은 상대국 무려가 어선의 인수·인계 강화, 단속공무원 간 교차승선, 해상 임검을 표준 질의응답 표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다음 달 초 중국 농업부 자오싱우(趙興武) 어업국장이 방한해 서해 중국어선의 조업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안도현 시인 "무죄 자신한다"

대선 트위터 글 기소... 국민참여재판 진행

문재인 "표현자유에 법의 칼날... 옹졸한 정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됐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려 기소되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들고 싶다"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문 의원은 특히 "국가기관의 용납 못할 선거범죄 행위는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개인적 표현의 자유나 비판적 행위에 대해 선거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옹졸한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시인은 오전 10시 50분께 자신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지지자 등 30여명과 함께 전주지방법원

에 나왔다.

안 시인은 "재판 준비를 많이 해 무죄를 자신한다. 변호인들이 배심원들을 감동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려 기소되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들고 싶다"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문 의원은 특히 "국가기관의 용납 못할 선거범죄 행위는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개인적 표현의 자유나 비판적 행위에 대해 선거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옹졸한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부

[인천출발] 석가장 전세기(면산·태항산)

2013년 10/12일~11/20일 매주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ICNP888-TW5 ◆구현산-태항대립암◆

태항산 4일 749,000원 ~

매주 수요일 출발

*특장: 리edes 등록제 제공, 도화석 관광

*선포함: 유류불용증, 가이드기사 NO TIP, 기타개인경비

[CNP888-TW5] ◆태항대립암·평요·구현산◆

태항산/ 면산 5일 899,000원 ~

매주 토요일 출발

*선포함: 리edes 등록제 제공, 도화석 관광

*선포함: 유류불용증, 가이드기사 NO TIP, 기타개인경비

무안출발 캄보디아 전세기

2014년 01월 01일~2014년 2월 26일

매주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AVPF01-ZA1] 양코르왓 4일/5일 599,000원 ~

*'얼리버드' 20석정찰[앙코르왓+5대특식]

*호텔: 골디나 호텔 또는 등급 부숙

*특장: 5가지 특식 제공, 캄보디아 기념품 3종 세트 제공, 봉사활동 2시간 증명서 발급, 전진마사지

[AVPF01-ZA2] 양코르왓 4일/5일 799,000원 ~

*호텔: 양코르왓 호텔 또는 등급 부숙

*특장: 6가지 특식 제공, 캄보디아 기념품 3종 세트 제공, 스마트오보 양코르 와. 담마스카

[AVPF01-ZA3] 양코르왓 4일/5일 1,149,000원 ~